

사회

나주 혁신도시 일부 주민 법인승인 없이 사업단 결성

“업체에 커미션·선불 달라” 물의

현장 돌며 공사 입찰 우선권 주장
전남도·나주시 “사업단 승인 불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 중인 가운데 나주 일대 일부 원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꾸려 공사 입찰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와 자재납품 업체들을 방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공동혁신도시 내 원주민 400여명으로 생계유지조합이 결성됐다. 이 조합은 지난해까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무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수목의 벌채 및 이식, 잔디·관목 식재 등에 대해 1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모두 마무리됐다.

언어야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이 사업단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사업단 관계자를 만났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생계유지조합사업단이라고 소속을 밝힌 사람들이 찾아와 동혁신도시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일부를 맡아달라며 사업단 승인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조합 관계자 역시 “사업단을 승인해줬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로 생계유지조합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돼 조합의 자금 해산을 유도할 방침이었으며 사업단의 실체는 모르는 일이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도 “최근 사업단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찾아와 혁신도시 생계유지조합에서 승인해준 사업단 일부 공사를 맡아달라며 사업단 승인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생계유지조합 관계자 역시 “사업단을 승인해줬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나주시 일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원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꾸려 공사입찰 우선권을 주장하며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2명 실형 선고

대구지법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는 형기에 폭을 인정함으로써 처우에 탄력성을 주려는 취지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떨어뜨린 과자를 주워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양 판사는 “학교폭력이 만연해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성추행

이웃거주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0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주모(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5동 장례식장에서 김모(9)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의 이웃에 거주하는 주씨는 동종 전과 1범으로 그동안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총인 녹취록 등장 공무원 구속

낙찰 돕고 하도급 요구·1만달러 수수

광주지검 특수부

총인저감시절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요참고자료인 녹취록에 등장하는 공무원을 구속했다.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던 녹취록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무원과 시공사 간의 ‘사전접촉 및 뒷거래’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0일 총인시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사(4급)를 제3차 뇌물취득 및 뇌물약속 혐의로 구속했다. 반씨는 지난해 3월 총인저감시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립산업이 공사를 따내게 되면 낙찰을 도운 대가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 하도급을 달라고 해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씨는 또 대립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심의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립산업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로써 반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5번째(3명 구속) 위원이 됐다. 총인저감시절 입찰심의를 직접 참여한 반씨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참여차지 21이 검찰에 제출한 로비의혹 녹취록과 요약본으로 보이는 문서에도 등장했다. 당시 녹취록과 문서에는 반씨와 대립산업 관계자 등이 ‘약속했던 대로 달라’, ‘잔액도 달라’,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등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녹취록에 등장한 반씨를 구속하면서 향후 반씨 이외에 녹취록에 등장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 당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506) 김장두



“왜 제삿상 안차려”

아내 흥기 위협 4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0일 시어머니 제삿상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흥기로 위협한 흉모(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흉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A(23)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흥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흉씨는 아내가 시어머니 제사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 흉씨와 결혼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제사상을 차리지 못했다. 남편이 습관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검찰청 유사 사이트 5억원 채권 보이스피싱 일당 3명 추가 구속

총 10억 인출, 여죄 추궁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에 검찰청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한 일당 박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6일 구속된 전 화금융사기 국내 인출액 한모(31)씨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원들로 피해금액 인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한씨 등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지난해 11월30일 한경에 거주하는 이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현금카드를 만들어 계좌에서 7800만원을 인출하

는 등 같은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5억1500여 만원을 가로챘던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정보를 노획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위조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한 뒤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이나 대만인들이 구성됐으나 최근에는 국내인들이 인출조직을 만들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 경찰은 이들이 최근까지 모두 10억원 가량을 인출했다는 진술과 계좌번호가 적힌 수첩 등을 확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날 신고해?” 이웃집에 화염병

장흥경찰, 40대 구속

장흥경찰은 20일 자신을 신고해 벌금을 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김모(46)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장흥읍 자신의 이웃에 사는 A(53)씨의 집 마당에 휘발유를 넣은 병에 불을 붙인 뒤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나지 않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창고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A씨로부터 경찰에 신고된 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자 지난해 교도소 노역장에 수감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폭행신고로 접수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협박 차원을 넘은 보복성 범죄로 보고 김씨를 구속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90차례 1억 흥친 상습 빈집털이

○무안경찰은 20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서모(33)씨를 구속. ○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3시께 목포시 상동 김모씨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목걸이, 팔찌, 디지털 카메라 등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0년 11월부터 9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무안, 목포 지역의 아파트, 고급 주택, 빌라 등을 돌며 열려 있는 베란다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는 “5층 이하 아파트는 가스배관을 타고 2~3리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이 전언.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Advertisement for 'Kim Young-pyeong' entrance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large text: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University entrance quota significantly increased!) and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What is university entrance? Another chance to overturn your SAT results!!). It lists exam details for 1st year and 2nd year students,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and Math. Contact information: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Website: www.kimyoung.co.kr. Date: 개강: 3월 2일.